

논문제목: 노인의 삶의 질 연구를 위한 통합적 모형

An Integrated Model for Studying the Quality of the Elderly

필자명: 박 성복 (Park, Sung-Bok)

소속기관

및 지위: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Professor of the School of Urban Studies, College of Public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연락처: 연구실: 053-850-2920 핸드폰: 011-9851-2920

**e-mail: [sungpark@daegu.ac.kr](mailto:sungpark@daegu.ac.kr)**

K C I

# 노인의 삶의 질 연구를 위한 통합적 모형의 구성

박성복\*

This study deduces a model by which we can make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quality of old people and discusses in detail the conceptual sub-dimensions that are composed of the model. The conceptual sub-dimensions are social conditions, old people's needs and life-environment, their life-world, objective welfare and subjective welfare, and the integrated welfare or quality of the elderly. The objective welfare is considered as life-capacity that is conceptualized by the introduction of Sen's capability, and the subjective welfare is composed of emotional satisfaction and existential satisfaction. I define the quality of the elderly as the elderly's emotional and existential satisfaction based on life-capacity. In this process, to clarify my arguments, I formalize mathematically the core concepts of the elderly's welfare such as life-world, functionings and n-tuple functionings, life-capacity, objective and subjective welfare, etc.

[Key Words: 노인의 삶의 질, 노인복지, 생활역량, 생활세계]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사회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지만 노령인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 제도적 지원과 노인복지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게다가 세계 60세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고령화 속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노인복지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대 노인들은 과거 자녀들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는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의 차원에서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전통적인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박성복 외, 2003: 232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0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단지 21.9%만이 때 사회보험의 혜택으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급여수준이 충분치 않는 국민연금의 수령자가 약 17.9%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노후소득의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기타 3개 직역연금의 수령자는 60세 이상 노인의 약 4%에 불과하다.<sup>1)</sup> 그리고 2001년 현재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 등 공적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65이상 노인은 같은 연령층 전체의 9.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재대 노인층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모든 노인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

1) 국민연금이 실시된 1988년 당시 이미 60세가 된 사람은 아예 연금에 가입할 수조차 없었다.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에 도달해야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9.6% 정도만이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1988년 1월 1일 당시 45~59세인 자로 1년 이상 가입자에게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지 않고 모두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들이다.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41-B00620).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날 노인복지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준비와 가족의 부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국가정책의 기능 또한 한정되어 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 및 고령 사회의 도래는 곧 부양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것은 자원이 한정된 사회적 여건 속에서 노인의 삶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은 건강하고 잘살고 행복하며,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게 평가받으면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노인의 생활은 질병, 심신의 건강상실, 빈곤, 경제적 의존, 고독, 인간관계의 단절, 무위 사회(적 역할의 상실)의 사고(四苦)로 묘사되고 있다. 즉 많은 노인이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독하며 하며, 그리고 별 할 일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준비, 가족의 부양체계, 지역사회 역할 그리고 국가의 노인 복지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적 노인복지제도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노인복지 혹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역할과 국가의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통합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 보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정책사업과 많은 차이가 있다. 즉, 그 제도는 노인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경륜을 사회에 환원시키며 본격적 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노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노인들 중심의 심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와 함께 노인들 자신의 복지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다.

그런데 정책적 및 실천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삶의 질 혹은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대상을 분명히 규정하여야만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및 실천적 차원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들을 살펴 살펴 보면 노인의 삶의 질 체계에 대한 정밀한 논리 및 이론적 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았거나 그것들이 불충분, 충분한 상태에서 실증적 연구에 착수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sup>2)</sup> 그러한 성격의 연구들에 바탕을 둔 정책적 및 실

2) '삶의 질'이라는 말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그것도 주로 서구사회로부터 이루어진 일이었다(Lane, 1996: 258-259). 2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에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지배적이었던 세 가지 관념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민주적 정치주의(democratic politicisism)로서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적 정부를 갖는다면 삶의 질은 자연히 해결된다는 관념이다. 둘째는 경제주의(economism)로서 경제적 번영이 복지감(sense of well-being)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며 또한 이것은 공리주의의 가정인 동시에 최고선이다. 셋째는 윤리주의(ethicisim)로서 개인 및 사회적 도덕성의 증진이 보다 나은 사회적 제도들과 삶의 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정이다. 바로 이러한 틀 속에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철학자들 자신이 함께 사회연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깊이 논의되었으나 좋은 정부가 번영 및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 주제는 별로 탐구되지 않았으며 윤리와 정의는 그 자체가 사회적 선(善)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삶의 질의 다른 측면들과의 관련성도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편 전후에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개관해 보면 그 경험적 측정치들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측정치는 개념이나 강조점의 변화에 따라 나온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이전의 것들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하는 못하였다. 초기의 측정치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었는데 특히 당시의 공리주의가 인당 1인당 GNP를 사회복지의 측정치로 사용되는데에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Stewart, 1996: 46). 인당 소득이나 부와 같은 그러한 경제적 측정치들은 환경오염, 기대수명, 약물오용 그리고 범죄율 등과 같이 삶의 다른 객관적 측면들에 대한 측정치들에 의해 보완되어,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한편 1960년부터는 이러한 경제적 지표들의 성공에 의해 자극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것들이 갖는 한계에 근거하여 주거의 질과 같은 구체적인 지표로부터 삶의 질과 같은 포괄적인 측정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복지의 지표들이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경제적 지표들을 대신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지표 운동이 일어났다(Carley, 1981: 1).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성장지향의 발전전략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전 전략의 목표에 대한 회의가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일어남으로써 인간의 기초적 필요욕구(basic needs)가 국가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다(Nagamine, 1981). 인간의 기초적 필요욕구의 충족과 절대빈곤의 감소를 강조하는 이 입장들은 GNP의 성장을 발전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소득분배의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었으며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기초적 필요욕구의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조건들 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들의 충족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음식, 의복, 거처, 거처, 건강, 교육, 사회보장, 근로조건, 인간의 자유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표준적 삶의 수준을 다루었다(Moon, 1991:

천적 개입 노력들은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많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지고 있는 부분적 연구들이 노인복지 혹은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지식축적에도 크게 기여하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측면들을 추출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 측면들로 삼고 그것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측면들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그러 그러한 세 측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앞의 주에서 소개한 삶의 질과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에서 개념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연역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종합적인 개념적 념적 틀을 구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과제는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개념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그러한 개념들의 논리적 관계를 밝혀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직접 경험적 연구를 착수할 수 있게 해주는 측정 변수들의 선택과 구성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sup>3)</sup>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객관적 복지와 주관적 복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되 그것들은 은 노인의 생활세계라는 삶의 장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관적 복지는 주관적 생활세계 세계 만족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편 객관적 복지는 센 (A. Sen, 1998) 삶의 질 개념에서 도입한 생활역량 역량 (capability)의 측면과 아울러 소득분배의 구조나 사회적 혹은 세대간 형평성과 같은 총량적 차원에서 판단된다는 입장을 갖는다.

## 2. 노인의 삶의 질 모형과 구성적 차원들

### 1) 노인의 삶의 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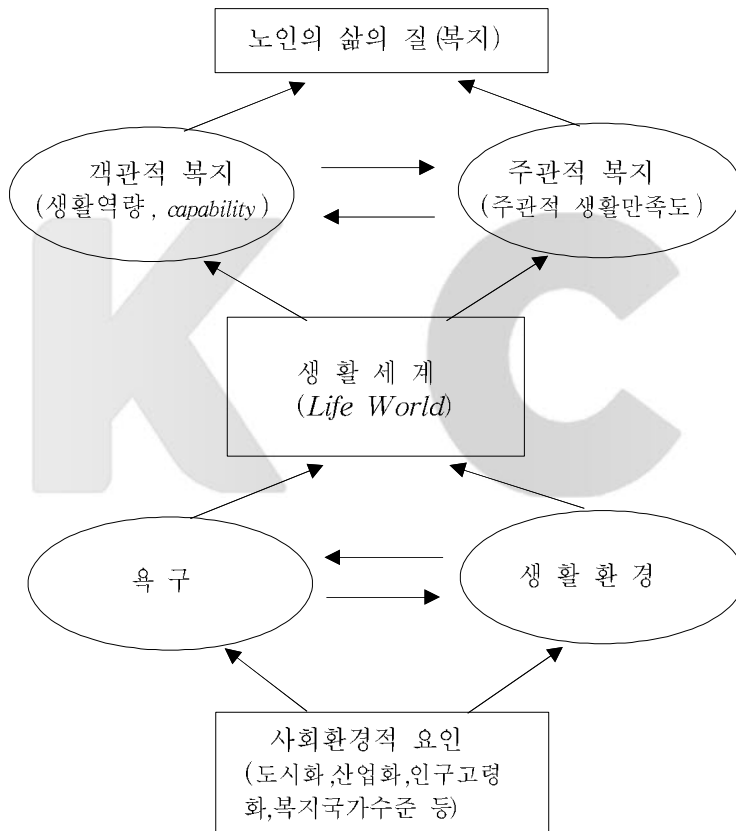
노인의 삶의 질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형에 포함될 요소들 혹은 하위개념들을 선정한 다음 그러한 러한 하위개념들 간의 관계를 규정지음으로써 개념적 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먼저 노인의 삶의 질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개념들로서 사회환경적 요인, 욕구, 생활환경, 생활세계 그리고 객관적 복지, 복지와 주관적 복지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욕구(needs)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내면적 요구나 필요이며, 생활환경은 그러한 욕구의 충족을 지원해 주는 객관적 생활조건들이고 그리고 생활세계는 주관적인 적인

5). 또 다른 편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에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감 혹은 행복감의 의미를 갖는 주관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측정가능한 삶의 개념에 내적인 차원을 추가시켰다. 그 주창자들은 그것이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차원으로 생각하였으며 (Argyle, 1996) 그러한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윤리주의자 등의 비판을 받아 삶의 질에 있어서 인간개발의 차원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철학적 성향을 지닌 경제학자 Amartya Sen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와서는 UNDP가 인간개발에 관한 국가간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경제적 표준생활, 사회적 생태적 물리적 환경 공리주의적 행복감 그리고 인간개발의 인본주의적 표준들 모두가 각기 삶의 삶의 질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1970대에 나온 기초적 필요욕구 접근법은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Sen에 의해 개발된 'capability approach' 인간의 capability 향상을 중심적인 목표로 삼고 보고 있고, UNDP에 의해 주창된 인간개발 접근법은 인간개발을 중심에 두고 기초적 필요욕구 접근법과 capability approach에 근거하여 만든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통해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측정하려고 한다. (Offer, 1996: 3).

3)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구분된다.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연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현실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 내지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인 반면 개념적 정의는 개념을 자세히 풀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지만 그러한 설명이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만 개념적 정의에 주된 관심이 모아질 아질 뿐이고 개발될 수 있는 측정 변수들은 개념적 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혹 예시적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그것이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

욕구와 객관적인 생활환경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삶의 총체적 경험 혹은 전체적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노인의 삶의 질은 노인들의 욕구충족과 밀접하다는 시각에서 노인들이 가진 다양한 욕구들을 몇 개의 영역별로 체계화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욕구의 충족을 지원해 주는 객관적인 생활환경 혹은 생활조건 조건들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복지정책 등의 수준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화, 도시화, 인구고령화,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의 수준 등 거시적 수준의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노인들의 욕구와 생활환경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한 예는 한 사회가 소유한 재화와 자원이 사회계층간에 형평하게 분배되는 정도를 고려하기도 했다. (Atkinson, 1970) 그리고 노인들의 욕구와 생활환경 역시 서로 영향을 줌으로써 상호 생성적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욕구와 생활환경이 결합되는 동태적인 과정인 생활세계의 여러 영역들이 욕구의 범주와 관련하여 설정된다.

[그림 1] 노인의 삶의 질 모형



이러한 논리적 관계를 개념적 틀로 삼아 하나의 모형을 연역적으로 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 구성성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도시화, 산업화, 인구고령화,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의 수준 등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노인들의 욕구와 생활환경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 이때 노인들의 욕구와 생활환경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내면적 욕구와 외부의 생활환경의 결합으로 노인의 삶의 영역을 이루는 생활세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생활세계로부터 객관적 복지인 생활역량과 주관적 복지인 생활만족도가 나오고 이 두 개의 차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혹은 노인복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우선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제 측면들의 개념적 설명과 그것들이 노인의 삶을 구성하게 되는 논리적 필연적 이유들이 관련된 된다.

연구문헌의 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 2) 노인의 삶의 질 모형의 구성적 차원들

### (1) 사회환경적 요인들

사람의 욕구나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사회환경의 경의 변화이다. 즉 사회환경의 점진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다른 변화를 야기한다 어느 지역의 거주 인구 인구에 변화가 온다든지, 경제적 조건이 바뀐다든지 사회적 과학적 기술이 발달한다든지 집단들 간의 역학관계 관계나 국민들의 의식이 변한다든지 출산율과 평균수명에 변화가 온다든지 복지국가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하는 것들이 그 좋은 예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의 삶은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크게 왜곡되어 왔다 특히 우리 사회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급속한 감소 등의 급속한 인구변천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완충하는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다.

인간 역사의 과정에서 보면 욕구충족과 관련하여 개인과 사회의 역할 사이에 이루어진 균형은 매우 다양했 했다(박성복, 2002: 18). 예컨대 사회적 조적이 최소 수준이었던 신석기 시대의 수렵사회에서는 욕구의 대부분을 매우 단순한 분업체계 속에서 노동하는 개인들 스스로가 충족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복지국가에서 예컨대 주거와 건강보호 등 이전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했던 많은 욕구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제도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국가에 따라 공공의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욕구충족의 범위는 다르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공공복지의 영역에서 영국보다 훨씬 더 적은 역할을 수행 하며 개인과 가족에게 욕구충족의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사회가 구성원들의 욕구를 규정하고 충족시키는 방식은 욕구사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듯이 김영중, 2004: 394)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성격에 관하여 그리고 개인과 사회구조의 관계에 관하여 많은 것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 (2) 노인의 욕구

욕구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다 욕구의 확인과 만족은 현대 국가에서 복지 기능을 여타 기능들과 구분하게 해주며 동시에 욕구와 권리 간의 관계성은 논란이 많은 복지 수혜자 편에서의 낙인 문제에 핵심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현대 국가에서 사회적 서비스와 다른 제도를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욕구라는 개념인 것이다 욕구의 규정은 사회적 서비스의 목표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중심적인 문제가 된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의 역사는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조직의 역사이기도 하다 (Bradshaw, 1972: 640) 급진적인 사회정책의 근본 원리는 그 분야가 의료건 교육이건 주거나 소득이건 자원이 욕구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 형태인 현대 복지 자본주의는 기본적인 목표가 사회의 지배계층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급진주의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George and Wilding, 1976) 하든 욕구 개념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사회적 서비스의 성과와 그 이상적인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의 삶의 질이나 노인복지의 향상을 논의함에 있어 먼저 노인의 욕구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인간 욕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노인의 욕구를 몇 개의 범주로 체계화해 보기로 한다.4) 먼저 고전에 속하는 Malow의 욕구단계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닌다(Maslow, 1970). 최근 현실요법과 선택이론의 상담이론을 제창한 Glasser는 생존 및 생식의 욕구, 소속의 욕구, 힘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인간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고 한다(김인자 옮김 ②, 2000: 21-41) 그리고 역시 최근 리더십 개발로 유명한 Covey는 인간 욕구를 물리적(physical) 욕구, 사회적(social) 욕구, 심리적(mental) 욕구, 그리고 정신적(spiritual) 욕구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Covey, Stephen R., A. Roger Merrill, and Rebecca R. Merrill, 1994). 이러한 여러 유형 유형의 욕구들을 간략히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Maslow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 Glasser 생존 및 생식의 욕구, Covey의 물리적 욕구 등은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및 경제적 욕구에 해당된다. Maslow의 소속과 애정의 욕구, Glasser 소속의 욕구, Covey 사회적 욕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들로서 또한 서로 유사하다. Glasser 힘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이 욕구에 수반되는 존경심을 추구하는 욕구이며 자유에 대한 욕구 욕구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든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구로서 두 가지 모두 Maslow의 자존의 욕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Glasser 즐거움에 대한 욕구는 대체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이며, Covey 심리적 욕구는 인간의 장기적인 발달과 성장에 관련된 욕구이며 이어서 두 가지 모두 한 인간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Maslow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 관련 된다고 하겠다. 다만 Covey의 정신적 욕구(spiritual needs)는 자존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와도 다르며 자 신보다 고차원의 어떤 것이나 타인들을 위해 기여하거나 헌신하는 삶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개체초월의 욕구 욕구 로서 다른 욕구 유형화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비교 검토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화 한다 우선 사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구분해서 다루어지고 있어 그에 따르는 것이 논의 과정에서도 편리할 리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구분되기도 해서 기초적 욕구를 신체적 욕구와 경제적 욕구로 구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핵가족 중심이며 생산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한 서구 사회 사회 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강조하고 확대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중요시 하는 집단주의적 가치 가치 관을 지녀왔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 (김영숙·서경현, 2002; 김태현 외, 1999) 그리고 Covey 제시한 정신적 욕구는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통하여 하여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들이나 대부분의 종교들이 중시하는 삶의 요소로서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결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인의 욕구를 표[ 표] 같이 신체적 욕구 경제적 욕구 가정 가정 적 욕구, 사회적 욕구, 심리적 욕구, 정신적 욕구로 6가지로 유형화 하고 그 하위의 보다 세부적인 욕구들은 들은 그 틀에 준거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노인 욕구의 유형화

유형화된 욕구	하위의 세부적인 욕구들의 예시
신체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욕구(신체적·기능적 건강)</li> <li>· 성적 욕구</li> </ul>
경제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주를 포함한 소비생활 욕구</li> <li>·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li> <li>· 경제적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에 대한 욕구</li> </ul>
가정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생존</li> <li>· 바람직한 가족관계의 유지 및 가족과의 통합</li> </ul>
사회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정과 관심이 담긴 지역사회생활</li> <li>· 좋은 이웃관계의 형성</li> </ul>

4) 인간 욕구의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모두 살펴 볼 수는 없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고 또한 현재의 논의를 진행시키기 기 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몇 개의 유형화만을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사회·문화적 욕구, 국가 및 지역사회와 개인간의 통합</li> </ul>
심리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적 안정과 건강(인지적· 정서적 안녕)</li> <li>·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욕구</li> <li>· 지식욕구, 새로운 기술의 습득, 환경에 대한 적응성</li> <li>· 개인의 성장감 및 새로운 관점의 습득 욕구</li> <li>· 힘에 대한 욕구(중요한 존재이고 싶은 욕구)</li> <li>· 즐거움에 대한 욕구(심리적 지루함, 고통 등을 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구)</li> <li>· 자유에 대한 욕구(자율성, 독립성, 자기선택권의 욕구)</li> <li>· 자아실현의 욕구(자기가능성의 최대한 실현 욕구)</li> </ul>
정신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대한 성숙된 태도(물질적 삶의 지양과 안심입명·안빈낙도의 생활)</li> <li>· 인생의 방향과 목적 및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인식</li> <li>· 도덕적 성숙에 대한 욕구, 초월적 및 종교적 욕구</li> <li>· 이타적(利他的) 삶에 대한 욕구</li> </ul>

### (3) 노인의 생활환경

생활환경은 노인의 욕구 충족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노인 스스로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생활조건 조건(Life Conditions), 자원 및 지식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노년생활은 신체적·기능적 건강, 인지적·정서적 안녕(well-being), 그리고 개인의 능력 및 욕구와 부합하는 활동 수준이다. 그런데 노년생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요구를 부과하는 자극과 함께 활동들을 들을 위한 맥락으로 작용한다. 노화의 개인-환경 이론(person-environment theories of aging)에 따르면 개인은 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크다(Hooyman and Kiyak, 2002). 그런데 이러한 환경은 고정되어 있는 정태적인 배경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즉, 노인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한 변화될 수 없는 환경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적응해 나가는 동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면 적응은 개인이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조정하는 한편 다른 특성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는 이원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기본 틀도 환경 속의 인간이다. 즉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 중 어느 것이든 변화가 있으면 개인의 행동이나 삶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생활환경을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생활환경으로는 주거상태, 건강상태, 노후대비, 개인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정보화 생활정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지식, 삶에 대한 태도와 의욕, 여러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 등을 들 수 있다. 가정적 차원의 생활환경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위시 해서, 가족원들의 노인부양의식과 가족부양체계, 가족과의 통합 정도 그리고 가족 전체의 소득 수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환경으로는 노인전문시설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수준, 자원봉사 봉사조직의 형성정도,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구성 및 활동 수준,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수준,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전반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생활환경에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수준, 각종 노인복지정책 및 행정 경로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노인빈곤해충을 위한 공공부조의 수준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총량적 차원의 생활환경으로는 고령화 관련 지수 및 지표, 사회내의 세대간 자원배분 상태, 세대간 소득불평등도, 노인복지예산의 규모,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출내역 중 노인복지관련 예산, 전반적인 노인취업률, 경제활동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 노인의 정치적 세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생활환경의 차원과 내용적 예시

생활환경의 차원	생활환경 내용의 예시
개인적 차원	주거, 건강, 노후대비책, 개인연금 및 소득, 정보화 장비보유와 지식, 생활지식, 삶에 대한 태도와 의욕,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 등
가정적 차원	배우자의 생존여부, 가족원들의 노인부양의식 및 가족부양체계, 가족소득
지역사회 차원	지역사회 케어를 위한 노인전문시설의 수준, 자원봉사조직,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수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국가적 차원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노인복지정책 및 행정, 공공부조(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총량적 차원	고령화 관련 지수 및 지표, 사회내의 세대간 자원배분 상태, 세대간 소득불평등도, 노인복지예산의 규모,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출내역 중 노인복지관련 예산, 전반적인 노인취업률, 경제활동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 노인의 정치적 세력 등

(4) 노인의 생활세계 (Life World)

일상적 생활세계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세계로서 객관적인 조건들과 사소한 일들 주관적인 경험, 의미, 행위들이 역동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관련지워져 있다. 인간의 행위를 객관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계몽화시키려는 실증주의에 대항하여 후설 (Husserl) 인간의 주관적 의미가 지향된 곳으로서의 생활세계를 강조 강조한 바 있고, 비트겐슈타인은 세계와 자아가 영커든 삶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언어의 규칙성이 녹아 있는 곳으로서의 생활세계를 논의하기도 하였다.<sup>5)</sup> 특히 사회학 분야에서 생활세계론은 슈츠(A. Schutz)에 의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Schutz: 1975).<sup>6)</sup> 일상의 생활세계는 가족, 이웃, 학교, 직장 동료 등과의 직접적 대면관

5) 후설(R. P. Husserl, 1859-1938)의 생활세계 개념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된다(Husserl, 1976; 이종훈, 1994: 103-114) 첫째 토대로서의 생활세계이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미르 미리 주어진 실체적 자연의 영역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물들의 세계. "(Ibid., 50) 둘째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직접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미리 주어진 우리의 일상적 세계. "(49)셋째 상대적인 구체적 경험의 세계. "(23)넷째 되는 일상세계는 소박한 실증주의적 의미가 아니지만 실재론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형성물로서의 생활세계이다. 생활 세계는 "주관의 지향적 작업수행을 거쳐 구성된 삶의 형성물들을 통하여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고 인식되는 세계(Ibid., 70), "정신적 영역 속에서만 자신의 지위를 갖는 개념 역사적 삶 속에서 이루어진 정신적 형성물. "(317)관적 세계가 아니라 역사적 세계들이 타당하게 간주되는 모든 현실성들을 지닌 그들 자신의 주관적 타당성 또는 세계표상. "(17)가리킨다. 이러한 선형적 관념론은 실재론적 해석자들에 의하여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후설의 선형철학은 대 상과 자아의 관계 속에서 사물과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보편적 구조를 지닌 생활세계이다. 일상적으로 친숙한 보편적 지평으로서, 항상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자연적 태도를 총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학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있는 세계"(Ibid., 151), 모든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상대적이지 않은 보편적 본질구조를 갖는 세계. "(142)고 경험의 흐름 속에서 확고한 구조들 본질법칙적 유형들 불변적인 보편적 규범양식을 지닌 세계. "(29)넷째 역사성을 지닌 생활세계이다. 단순한 전체가 아니라 총체적 통일체로 구성된 역사적 형성물. "(Ibid., 208)양적으로 늘상 논의되고 되고 상호주관적으로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세계. "(175)각의 역사적 시대와 인간성에 대해 그 그 자신의 존재방식을 지닌 생활의 환경세계로서의 문화세계. "(366)가리키는 생활세계는 총체성을 지니고 학문세계와 대조 대조 되는 역사적 세계를 가리킨다.

이상과 같이 후설의 생활세계의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사물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로만 이해한다. 다 면 실제성이나 지각가능성은 충족되지만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의 환경세계는 배제된다. 만약 생활세계를 언어 언어와 문화의 환경세계로 제한한다면 주관에 상대적이라는 요구는 충족되지만 그 자체가 상대적이지 않은 생활세계의 보편적 본질 구조에 대한 논의가 간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설의 생활세계개념은 실재론적 해석을 허용하는 미리 주어진 토 대로서의 성격과 관념론적 해석을 허용하는 구성된 형성물로서의 성격을 양극으로 하는 일련의 스펙트럼과 같은 모습을 습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두 극은 서로 대립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생생한 사회성과 역사성 사성을 언어 통일적 총체를 이루게 된다. 생활세계의 역사성이 이 양극 사이의 상화작용을 통하여 생활세계개념의 총체성을 성을 밝혀주게 되는 것이다(이종훈, 1994: 110-11; 이석희, 1996: 128-9).

6) 슈츠는 막스 베버의 사회적 행위 개념에서 출발하여 에드문트 후설의 생활세계와 간주관성 혹은 상호주관성 의) 두 개 개

계로부터 매스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대면에 이르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곳으로 생애 전반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실천들로 구성되어 있다(김왕배, 1999). 한국 일상적 생활세계는 시간과 공간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는 실천들(가족, 직장, 교육, 여가 등)에 의해 구성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삶의 형태와 범위 및 질적 수준이 규정되는 세계이기도 하다.

노인은 이러한 일상의 생활세계 속에서 객관적 생활환경이 제공하는 여러 조건과 자원들 속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며 혹은 욕구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욕구충족을 위한 생활 및 활동 활동(doing)이나 being)의 예들로서는 영양섭취, 거주 및 소비활동, 여행, 정보화 생활,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지역사회활동, 정치적 참여활동 등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삶에 대한 경험들의 총체적 장 혹은 혹은 전체적 삶의 영역으로서 생활세계는 객관적 차원인 생활환경과 주관적 차원인 내면의 욕구가 결합되어 이루어 루어지는 역동적인 삶의 과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김익기 외, 1999: 48). 객관적 생활환경 차원과 주관적 욕구 욕구 차원이 통합된 전체적인 생활세계는 욕구를 기준해서 신체적, 경제적, 가정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하위생 위생 생활세계 즉 생활영역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4. 노인의 삶의 질: 노인복지

노인의 삶의 질은 그의 생활세계에서 향유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객관적 복지와 생활세계 속 | 속에서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주관적 복지의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 객관적 관적 복지는 센(A. Sen)의 ‘capabil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역량(生活力量)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주관적 복지는 객관적인 생활역량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측정된 주관적인 생활만족도이다. 그 내용은 용은 행복감과 같은 단순한 정감적 차원과 삶의 충실감, 인생의 보람과 충만감,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감 등과 같이 같이 보다 상위의 실존적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주관적 복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복지와 비교라는 실 : 실 증적인 필요성에 의해 앞에서 유형화한 하위생활세계들인 생활영역이나 생활소의 영역에 따라 주관적인 척도 척도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노인의 생활역량: 객관적 복지

노인의 생활역량은 그의 생활세계에서 경험적 측정 내지 보편적 설명이 가능한 객관적 분석적 차원을 나타 내는 것으로서 센(Sen)의 ‘capability’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한다. 센은 바람직한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향유하거나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즉 ‘capability’(生活力量)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을 보고 있다(Sen, 1993). 즉 ‘capability’ 접근법은 한 개인의 삶의 상태를 생활세계의 다양하고도 가치 있는 ‘functionings’(生活素)라고 하는 요소들을 향유하여 누리거나 혹은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생활소는 삶과 경험의 총체로서의 생활세계를 구 : 구 성하는 단위요소들이며 구체적으로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부터의 안전, 신체적으로 적절하게 영 : 영 양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 사회적 이동성을 갖추어 있는 것 등과 같이 아주 단순한 것도 있고 행복한 상태 자 , 자 기존중의 실현,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 수치심 없이 공중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정도 등 : 등

념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 내에서의 행위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타인의 의식 과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방법론적 이 : 이 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세계의 구조적 분석에 막대한 공헌을 세웠다. 알베트 살로몬 (Albert Salomon) 독일 ‘사회학 회학’ 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후설의 현상학을 그 본래의 완전한 의미에서 적용한 자는 주로 슈츠였다(이규호 편저, 1977: 186-187).

과 같이 복잡한 것들도 있다.

이러한 생활소들을 기초단위로 하여 생활역량이 구성된다. 이 때 생활소군 (生活素群) 개의 생활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 혹은  $n$ -요소 벡터 개념이다. 한편 생활소군의 원소들인 다양한 생활소들도 유사성에 따라 범주화되는 생활영역들에 분속된다. 생활영역들에는 개별적 생활영역들과 총량적 생활영역이 있다. 개별적 생활영역들은 생활세계의 생활소 전체를 욕구 중심으로 분류한 신체적, 경제적, 가정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생활영역들이며, 총량적 생활영역은 자원배분상태, 사회적 형평성, 세대간 자원배분, 복지예산규모, 공공재, 공개의 수준 등과 같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체 사회의 특성들이다. 그러한 생활소군들이 모두 모여서 생활역량을 규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생활역량이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생활역량은 간단히 말하면 실현하여 누리고 있거나 누릴 수 있는 생활소 및 생활소군들이 개인에게 얼마나 주어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일상 생활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집합적 개념인 생활역량을 가장 기초적인 정보기반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생활소 및 생활소군들로부터 규정된다. 만약 어느 어느 한 사회에서  $n$ 개의 생활소들이 평가공간을 구성하는 대상가치로 선정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생활세계 공간의 한 점은  $n$ -요소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생활소군(functioning  $n$ -tuple)이 되고 한 개인에게 가능한 다양한 생활세계들의 어느 하나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생활소들은 삶의 질 평가에 의미 있는 것으로 선정된 개인적 생활세계의 요소들이며 생활소군은 한 사회가 삶의 질 평가와 관련하여 가치 있다고 결정한 그러한 생활소들의 한 묶음이 될 것이다. 생활역량은 바로 그러한 생활소군을 원소로 갖는 하나의 집합으로서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세계 생활소들의 다양한 조합 점들의 범위를 나타내고 동시에 객관적 복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더 공식화시켜 보면 우선  $i$  번째 생활세계를  $l_i$ 로,  $f_i$ 는  $l_i$ 로부터 누리게 되는 객관적 복지,  $i$  번째 생활세계  $j$  번째 생활소 혹은 생활영역을  $x_{ij}$ , 그리고 개인  $p$ 의 생활역량을  $C_p$ 라고 하자. 그러면  $i$  번째 생활세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vec{l}_i = (x_{i1}, x_{i2}, \dots, x_{ij}, \dots, x_{in}) \quad (\text{식 1})$$

이러한 생활세계에서 객관적 복지를 가늠해 보는 식은 다음의 (식 2)와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_i = f^i(x_{i1}, x_{i2}, \dots, x_{ij}, \dots, x_{in}) \frac{\partial f_i}{\partial x_{ij}} > 0, \quad (j = 1, \dots, n) \quad (\text{식 2})$$

여기서 (식 2)의  $f^i$  는  $i$  번째 생활세계에서 생활소별 혹은 생활영역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복지의 특정한 값(value)  $f_i$  를 산출해 주는 함수이며, 편도함수 값이 양인 것은 그 속에 포함된 개개의 생활소나 생활영역들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노인 개인의 생활역량은 이러한 생활세계 및 가능한 생활세계들의 집합이므로  $C_p$ 는 다음과 같다:

$$C_p = (\vec{l}_1, \vec{l}_2, \dots, \vec{l}_j, \dots, \vec{l}_m)' = \begin{bmatrix} x_{11} & x_{12} & \dots & x_{1j} & \dots & x_{1n} \\ x_{21} & x_{22} & \dots & x_{2j} & \dots & x_{2n}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x_{i1} & x_{i2} & \dots & x_{ij} & \dots & x_{in}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x_{m1} & x_{m2} & \dots & x_{mj} & \dots & x_{mn} \end{bmatrix} \quad (\text{식 3})$$

한편 (식 3)은 단지 대상가치의 선정을 통해 얻은 정보기반(*informational base*)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생활역량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가치의 가중치 결정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체적인 함수 형태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센(Sen)은 이러한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요소평가(*elementary evaluation*)와 비요소적 방법인 집합평가(*set evaluation*)에 대해 언급한 바도 있다. 이에  $C^p$ 는  $f^i (i=1, \dots, m)$ 를 통해 얻은 객관적 복지 값들의 집합으로부터 개인  $p$ 의 생활역량 값으로 전환시켜 주는 함수라 하면, (식 4)는 각각 생활소와 생활소군의 가중치 문제가 고려된 일반함수를 나타낸다.

$$C_p = C^p(f_1, f_2, \dots, f_i, \dots, f_m)' = C^p \left( \begin{matrix} f^1(x_{11}, x_{12}, \dots, x_{1j}, \dots, x_{1n}) \\ f^2(x_{21}, x_{22}, \dots, x_{2j}, \dots, x_{2n}) \\ \vdots \\ f^i(x_{i1}, x_{i2}, \dots, x_{ij}, \dots, x_{in}) \\ \vdots \\ f^m(x_{m1}, x_{m2}, \dots, x_{mj}, \dots, x_{mn}) \end{matrix} \right) \quad (\text{식 4})$$

여기서 행의 수  $m$ 의 값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생활역량(*capability*)이 높은 개인일수록  $m$ 의 값은 커질 것은 당연하다. 즉 자신이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는 생활세계의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역량은 주로 객관적인 생활세계의 범위 및 내용과 관련된 의미로 파악되며 생활소를 인간 인간의 보편적 욕구와 객관적 생활환경이 결합되어 삶이 실현되었거나 언제라도 그러한 삶의 실현이 가능한 상태 상태에 있는 생활세계의 객관적 요소로 규정할 수 있다.

## 2)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주관적 복지

개인은 생활세계의 객관적 차원 외에도 주어진 생활환경 속에서 체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풍요로움 자립감 감 성장감, 혹은 가치 있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감정에서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같이 생활세계는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인 세계이며 경험과 삶의 총체로서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결합된 합된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삶의 질에 주관적인 차원을 추가시키되 자아존중의 보장이나 창조적인 삶 등을 강조하는 UNDP의 인간개발이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단순한 '정감적 만족'과, 삶에 대한 충만감, 주체감, 자율감, 성장감 등 내면의 가치 있는 주관적 체험들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실존적 만족 관적으로 이원화하고자 한다.<sup>7)</sup>

7) 삶의 질 개념에 주관적 만족감을 포함시킬 경우 어떠한 심리적 만족감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쾌락주의(*hedonism*)와 공리주의 등에서는 감정적 욕구에 대한 만족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등은 도덕적 이성적 정신활동에서 오는 만족감을 주로 했다 한편 주관적 복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부분 부분 '행복'에 대한 자기평가보고에 근거하고 있는데 (Diener, 1994) 행복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가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이고 둘째는 인생 전반이나 일 여가 등 인생의 여타 부분들에 대한 만족이다 (Argyle, 1996: 18). 이것은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처럼 주관적 복지는 정감적인(*affective*) 요소와 인지적인(*cognitive*) 요소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Diener, 1994: 108) 특히 Ryff(1989) 주관적 복지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측정치들 외에 삶의 목적, 개인적인 성장, 타인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계속적인 자기개발 등의 추가적인 요인들을 발견하였고, Waterman(1993)은 생동감과 자기정체감에 관한 질문에 근거한 행복(*eudaimonia*)을 즐거움이나 기쁨에 관해 질문하는 쾌락적 측정치들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가 도전, 경쟁, 노력, 정신 등의 집중 적극적인 자아주장 등에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인지적 측면은 쾌락적 즐거움이나 단순한 수준의 행복감을 내용으로 하는 정감적 만족보다는 높은 수준의 어떤 정신적 !신적 가치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우리도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을 규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만족감을 두 가지로 나누되 특히 인지적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인지적 측면은 삶의 질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인간개발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 동시에 정신적 가치의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을 무엇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철학적 문제가 있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결국 물질이나 욕구보다 상위 수준의 어떤 내면적 !면적 가치일지도 모른다. 외적인 삶의 조건들과 여러 관계들은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있어서 필요하긴 하지만 삶의 질의 본질은 역시 인

이에 복지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통합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생활역량을 바탕으로 한 정감적·실존적 만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  $i$ 가 그 속에서 실제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특정한 생활세계로부터 가늠할 수 있는 삶의 질  $Q_i$ 를 (식 6)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_i = Q^i(y_{i1}, y_{i2} | x_{i1}, x_{i2}, \dots, x_{ij}, \dots, x_{in}), \quad \frac{\partial Q_i}{\partial (x_{ij}, y_{ik})} > 0, \quad (j=1, \dots, n; k=1, 2) \quad (\text{식 } 6)$$

여기서  $Q^i$ 는 생활세계의 주관적·객관적 요소들을 삶의 질로 전환해 주는 함수이고, 그 독립변수들 중  $y_{i1}, y_{i2}$ 는 각각 실존적 만족과 정감적 만족을 나타내며, 그리고 나머지  $x_{ij}$  ( $j=1, \dots, n$ )는 생활역량을 구성하는 객관적 생활세계의 요소들 즉 생활소 내지 생활영역들을 나타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대변해 변하는 지표체계는 일차적으로 몇 개의 부문으로 대별된 다음 각 부문은 다시 여러 개별지표들로 구성되기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y_{i1}, y_{i2}$ 는 주관적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실존적 만족과 정감적 만족의 두 부문을 대변하며,  $x_{ij}$  ( $j=1, \dots, n$ )는 객관적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n$ 개의 부문이 되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다시 다양한 개별지표들이 존재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경우  $n$ 는 6개의 개별적 생활영역과 1개의 총량적 생활영역을 포함하여 7개의 생활영역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앞의 주관적 만족감과 뒤의 객관적 생활세계 11개 중 어느 하나에만 관심을 두거나 혹은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 생활환경이 제공하는 자원의 정도는 개인의 욕구충족 및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에 당연히 기여하겠지만 주관적 관적 삶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삶의 차원과 독립하여 구성되고 조정된다. 따라서 생활세계의 두 차원 즉 객관적 생 3 생활세계와 주관적 생활세계를 별도로 다룰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을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이원화하여 정태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확인되어지는 지는 부분은 주관적 만족감에 있다는 견지에서 다소 추상적이거나 객관적 생활세계의 요소들을 조건적인 변수의 의미의 미를 갖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함수구성은 실증적 연구와 관련된 분석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통찰 통찰들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첫째 객관적 생활세계를 대변하는 다양한 생활소들 중 어떤 것들이 주관 주관적 만족과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주관적 만족의 두 차원 중 어느 것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분석은 개별지표들의 선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일단 분석을 통해 주관적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객관적 생활세계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등을 통해 그 비중들을 밝혀내어 지표들의 합산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언제라도 누릴 수 있는 생활세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의 자유 개념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센 (Sen) 입장을 따르게 되면 식 (은6)하나의 실현복지로서로서 삶의 질에 대한 요소평가가 된다. 이에 한 노인  $p$ 에게 가능한 생활세계들 모두가 감안된 삶의 질은 (식 7)과 같이 집합평가가 될 것이다.

$$Q_p = Q^p(Q_1, Q_2, \dots, Q_j, \dots, Q_m)' = Q^p \left( \begin{array}{c} Q^1(y_{11}, y_{12} | x_{11} \quad x_{12} \quad \dots \quad x_{1j} \quad \dots \quad x_{1n}) \\ Q^2(y_{21}, y_{22} | x_{21} \quad x_{22} \quad \dots \quad x_{2j} \quad \dots \quad x_{2n}) \\ \vdots \\ Q^j(y_{j1}, y_{j2} | x_{j1} \quad x_{j2} \quad \dots \quad x_{jj} \quad \dots \quad x_{jn}) \\ \vdots \\ Q^m(y_{m1}, y_{m2} | x_{m1} \quad x_{m2} \quad \dots \quad x_{mj} \quad \dots \quad x_{mn}) \end{array} \right) \quad (\text{식 } 7)$$

간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여기서  $Q_p$  는 노인  $p$ 의 삶의 질이고,  $Q^b$ 는 선택가능한 영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활세계들에 대한 집합 평가를 통해 삶의 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함수이며, 그리고  $m$ 은 한 노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언제라도 실현시켜 향유할 수 있는 생활세계의 개수이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에서는 실현하여 누리고 있는 특정한 하나의 나의 생활세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에서는 결국 식 (이 8)용 이용 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논의하거나 그 지표를 구성할 경우 생활역량 역량과 주관적 만족을 이원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감 역시 정감적 만족과 실존적 만족으로 이원화 시켜 시켜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 결론

이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모형을 연역적으로 도출하고 그 모형을 구 구성하고 있는 개념적 하위 차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된 개념적 하위 차원들은 사회환경적 요인들 노인의 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노인의 생활세계, 객관적 복지 주관적 복지 그리고 객관적 복지와 주관적 복지를 통합한 노인 노인복지 혹은 삶의 질 개념 등이었다. 객관적 복지의 개념은 센(Sen)의 ‘*capability*’ 개념을 도입하여 개념화한 ‘생활역량’으로 하였고, 주관적 복지의 내용을 실존적 만족과 정감적 만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두 차원을 원을 결합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생활역량을 바탕으로 한 정감적·실존적 만족”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로서는 첫째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에서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가의 수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생활조건과 자원들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노인복지를 증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체계적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 이해 이해를 통해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체계적 이론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적 회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가능한 자원이 노인의 삶의 질의 개선 혹은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에서 개인, 가정 및 국가와 연계되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삶의 삶의 질 혹은 복지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이 이 분야에서 하나의 체계적인 지식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도록 전체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비록 이원화된 정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1 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 복지에 대해서는 니즈(needs)에 바탕을 둔 생활역량의 개념 및 총량적 차원을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물질적인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는 삶의 질 연구와는 매우 다른 점 1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풍부한 연구들이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문제에 도 1 도입되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이기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숙·서경현, 2002, ‘생활환경에 따른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준’, 노인복지연구 2002월호 273-290.
- 김영중, 2004,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왕배, 1999, “일상생활세계론: 시·공간과 실천의 합리화”, 『경제와 사회』 제43호 가을호, pp.175-204.
- 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 1999, 한국 노인의 삶,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터
- 김인자·옴김 ①, Robert E. Wubbolding 저, 2000, 『현실요법의 적용』,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인자·옴김 ②, William Glasser, MD 지음, 2000,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박성복 외, 2003, 노인교육개론, 대구: 형설출판사.
- 박성복, 2002, 공공복지의 이해, 대구대출판부.
- 이규호 편저, 1977, 사회과학방법론, 서울: 현암사.
- 이석희, 1996,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열린교육을 위한 정책방향, *중아행정논집* 제10집, pp. 127-146
- 이종훈, 1993,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형적 현상학, 이론과 실천
- 이종훈, 1994, 현대의 위기와 생활세계: 훗설의 생활세계개념연구, 동녘.
- Andrews, Frank M. and Stephen B.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 Argyle, Michael, 1996, Subjective Well-Being, in Offer, 1996: 18-45.
- Atkinson, A., 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3): 244-63.
- Baldwin, Sally, Christine Godfrey and Carol Propper, ed., 1990,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and Policies*, N.Y.: Routledge.
- Bradshaw, J., 1972, The Concept of Social Need, *New Society*.
- Beckie, Theresa M. and Hayduk, 1997, Leslie A., *Measuring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 Research* 42: 21-39
- Carley, Michael, 1981,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 Covey, Stephen R., A. Roger Merrill, and Rebecca R. Merrill, 1994, *First Things First*, New York: Simon & Schuster.
- Diener, Ed.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Forder, A., 1974, *Concept in Social Administr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George, V. and Wilding, P., 1976,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 Hooyman, Nancy R. and Kiyak, H. Asuman, 2002, *Social Gerontology*, Boston: Allyn and Bacon.
- Husserl, Die Krisis der Europaeischen Wissenschaft und die Transzendental Phaenomenologie, hrsq., W. W. Biemel(1976); 이종훈 역,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형적 현상학, 이론과 실천, 1994
- Lane, Robert 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s a New Role for Well-being Measures, *Political Theory*. 22.
- \_\_\_\_\_, 1996,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s: A New Role for Government? in Offer, Avner (ed.), 1996: 256-293).
- Liu, Ben-Chieh, 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 S. Metropolitan Areas: A Statistical Analysi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Maslow, Abraham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N.Y.: Van Nostrand Reinhold.
- \_\_\_\_\_.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Moon, Bruce E., 1991, *The Political Economy of Basic Human Needs*,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Nagamine, Haruo, 1981, *Human Needs and Regional Development*, Nagoya, Japan: Maruzen Asia.
- Nussbaum, Martha and Sen, Amartya, ed. 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92. "Human Functioning and social Justice: In the Defense of Aristotelian Essentialism." sm." *Political Theory* 20.2, 202~246.
- Offer, Avner, 1996, *In Pursuit of the Quality of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t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81.
- Schutz, A., 1975, *On Phenomenology and Social Relation*, ed. by H. Wagner, The Univ. of Chicago Press.
- Sen, Amartya. 1985①. *The Standard of Liv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②. *Comodities and Capabilities*. New York: North-Holland.
- \_\_\_\_\_.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92. *Inequality Reexamine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in Nussbaum and Sen(1993): 30~53.
- UNDP. 1990.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ae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78~91.

K C I